

광주 외국인 1만명 시대

2세 교육시설이 없다

유일 외국인학교 학비 年 2천만원 ... 학력 인정 안돼

초·중·고 재학생 653명 ... '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수가 1만명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지만,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 시설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외국 기업 유치' 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광주에서 유일한 광주외국인학교(이사장 로버트 할리)의 경우 연간 납입금만 2천만원에 육박하고, 졸업하더라도 한국 학력으로 인정도 되지 않는 탓에 외국인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광주시와 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거주 외국인 수는 지난 2006년 8천155명에서 2007년 1만 16명으로 첫 '1만명' 시대를 연 뒤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 4월 기준으로 광주지역 초·중·고에 재학중인 국제결혼 또는 외국인 가정 자녀는 653명(남 351명, 여 302명)에 이른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69명, 초등학교 506명, 중학교 57명,

고등학교 21명 등이다. 부모 출신국가별 보면 일본(245명), 중국(161명), 필리핀(153명), 베트남(30명), 태국·남부아시아(각각 7명), 러시아·몽골(각각 6명), 유럽권(5명), 대만·중앙아시아(각각 4명), 미국 3명 등이다.

하지만, 광주지역의 유치원·초·중·고교 529개교 중 외국인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과 한국어반 등은 초등학교에만 1학급(2명)이 있을 뿐이고, 이외에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학교나 학급은 단 한 곳도 없다.

그나마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광주 외국인학교가 북구 양산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높은 납입금 때문에 전체 95명 중 외국인 재학생은 25명에 불과하다.

유치원(2학급), 초등학교(6학급), 중학교(3학급), 고등학교(3학급) 등 14학급을 운영중인 이 학교는 유치원의 경우 연간 1천318만원,

초등학교 1천454만원, 중학교 1천 556만원, 고등학교는 1천638만원의 납입금을 받고 있다. 자립형으로 운영되는데다 학생수 부족 등으로 납입금을 낮출 수 없다는 게 학교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거주 외국인의 자녀를 위해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이 학교의 규모를 늘려 첨단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고액의 납입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외국인 자녀의 재학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거주 외국인의 숫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 시설은 너무 빈약하다"면서 "국비와 시비, 학교측 부담금 등을 합해 광주외국인학교를 신축·이전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에는 20개의 외국인학교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총 5천573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부산, 인천, 경기 등에서도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다수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세계 음식 장터

지난달 31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2회 광주 세계인의 날' 행사에 참여한 베트남 여성들이 '세계 음식 장터' 부스에서 자국 전통음식인 '에그 롤'을 만들고 있다. /위정기자 jrwi@kwangju.co.kr

“피부색 달라도 우리는 하나”

전남대서 '제2회 광주세계인의 날' 행사

20개국 노동자·이주여성·시민 등 참여

세계 20개국의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광주시민들과 한데 어울려 서로의 전통 문화를 교류하며 국경을 초월한 우정을 나눴다.

지난달 31일 '제2회 광주세계인의 날' 행사가 열린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대운동장. 1천 500여명의 참가자들은 언어·종교·국적을 뛰어넘어 한마음이 되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광주국제교류센터와 외국인근로자선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광주시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광주 국제교류의 날'이란 슬로건 아래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인도·일본·인

도네시아·필리핀·중국·베트남·네팔·스리랑카·미국 등 20개국 외국인들이 참가했다.

50개 참여 단체들은 이날 '세계 문화마당'이란 테마로 30여 개의 부스(체험·놀이·참여마당)를 개설, ▲세계 전통문화·종교 전시 ▲세계 각국의 음식체험 ▲광주 속의 세계 옛보기(대나무 대박 놀이 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세계 음식장터'엔 중국의 만두, 필리핀의 코코넛 샐러드, 일본의 오키노미야키, 베트남의 월남 쌀 등 12개국의 전통음식이 마련됐다. '비록장터'에서는 외국서적을 포함한 장신구, 옷, 장난감 등 종교

품들이 판매됐다. 이날 판매 수익금 일부는 이주여성 지원금 등으로 사용된다. 한국·필리핀·영국·네팔·캐나다 등의 기타·전통 춤·전통 가요 등의 경연을 벌이는 장기자랑대회도 이어졌다.

6개월 전 광주에 왔다는 도나벨 벤톨로(Donnabelle Bantolo·여·25)씨는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사)광주국제교류센터 김태형(30) 간사는 "광주에 온 목적은 서로 다르지만 외국인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인재들"이라며 "광주시민과 외국인이 어울려 즐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서로 문화를 접하는 경험을 가져 다문화 공생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7817) 김장동



순천 마트에 불 1억 피해

31일 새벽 1시30분께 순천시 저전동 모 마트에서 불이나 점포 내부 297㎡를 모두 태우고 3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1억1천6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진화작업을 하던 소방관 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석유류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방화 여부 등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픽치기' 10대들 '차비 없어서 범행'

○집에 갈 차비를 마련하기 위해 취객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철없던' 10대 6명이 줄줄이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은 지난달 31일 이른바 '픽치기' 범행을 가담한 해남모고교 3년 김모(18)군 등 6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이날 새벽 3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양동 S장의 앞길에서 귀가 중인 취객 이모(48)씨에 접근한 뒤 현금 5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

○학교 선루배 사이인 이들은 전날 광주에 일을 보러 왔다가 집에 갈 차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취객을 보자 순간 이성을 잃었다"고 진술. /이중행기자 golee@

비브리오팀을 첫 검출

시중 유통 백합서 ... 어패류 익혀 먹어야

광주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백합에서 울들어 처음으로 비브리오팀균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해산물과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 먹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각 구청에서 의뢰한 조개류 4건, 수족관 내 어류 9건 등 모두 15건을 검사한 결과 이 중 백합에서 비브리오팀균이 나왔으며, 이는 예년에 비해 한 달 가량 빠른 것이다.

비브리오팀균은 간질환 환자, 당뇨병 등 저항력이 약한 만성 질환자들이 비브리오팀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익히지 않고 먹거나 피부 상처

를 통해 감염되며, 급성발열과 오한, 혈압저하, 복통, 설사 등 증상을 동반, 발열 후 36시간 이내 피부병변이 발생하고 치사율은 50%에 이른다.

비브리오팀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산물이나 어패류를 익혀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조리 과정에서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상처가 난 상태에서는 바닷가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 특히, 간 질환을 포함한 만성병과 면역저하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전국적으로 50명의 비브리오팀균 환자 발생해 24명이 사망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화물연대 11일 총파업

금속노조도 10일 파업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오는 11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금속노조도 10일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공공운수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6월 10일까지 고(故) 박종태씨의 관련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11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전국 1만5천여명 조합원의 지지를 얻고, 미가입 화물차주들까지 확산하는 등 동력을 얻으면 물류운송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을 전망이다.

금속노조도 지난달 3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마무리된 사업장의 전 조합원이 오는 6월 10일 2시간씩 파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환수

법원 10급 공채 136대 1

고학력자 61% 차지

취업난의 여파로 법원 기능10급 관리원의 특별채용 경쟁률이 100대 1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달 31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최근 기능10급 특별채용 접수 결과 총 6명 모집에 821명이 몰려 1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재학 중인 고학력 미취업자들은 498명(60.6%)으로, 석사 이상 학위자도 19명(2.3%)에 달했다. 이는 최근 고학력층의 구직난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법원은 이번 특채에서 학력이나 경력 등의 제한을 두지 않았

다.

'월정 응시' 및 '여성 응시' 현상도 두드러졌다. 이번 모집에는 수도권, 영남, 충청, 강원 등의 응시자가 54명(6.6%)에 달했다. 또 운전이나 신변 보호가 주업무임에도 여성 구직자가 105명(12.8%)이나 몰렸다.

이번 특채는 기존 법원의 용역 운전원을 관리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최종 합격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다음달 19일 발표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국립학점' (National Credit)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person holding a large, round object. The text includes '국립학점' and '국립학점'.